

경영전문대학원 제도 운영의 현황과 이슈*

백태영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typaik@skku.edu)

손성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sksohn@yonsei.ac.kr)

실무중심의 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경영전문대학원 제도가 1998년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에 의해 경영전문대학원을 인가 받아 운영하고 있던 성균관대학교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경영전문대학원 제도의 운영현황과 이슈를 분석한다. 1998년에 도입한 경영전문대학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점점 중요시 되고 있는 국내 주간 MBA 교육의 제도적 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왔다. 주간 MBA 교육과정의 이상적인 틀로서 도입된 경영전문대학원 제도는 야간 경영대학원의 폐지라는 인가조건의 제약을 기피하는 대학교들에게 외면당하여 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교육부는 야간과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경영전문대학원 제도를 2006년에 실시하였다. 새로운 제도에서 6개 대학교가 2006년 9월부터, 5개 대학교가 2007년 3월부터 경영전문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도록 인가 받았다. 구 제도의 문제점과 가능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새 제도가 어떻게 대학원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주제어: 경영전문대학원, MBA, 경영대학원, 경영 전문인력 양성

1. 서론

국제화, 정보화, 전문화 사회로 전환하면서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경영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경영 전문가 교육과정이 국내에서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다. 기존의 경영 학부 교육은 이론중심교육, 실무적 활용성을 고민하지 않는 교육,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이 되어 왔다.

경영학 대학원 교육은 연구자를 육성하는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과 직장인의 재교육을 위한 특수대학원 교육으로 나누어져 왔다. 일반대학원 경영학 과정은 연구 중심의 과정이므로 실무적인 경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영 전문가를 육성하지 못한다. 특수대학원인 경영대학원은 직장인을 위한

야간대학원이므로 졸업 이수 학점이 낮고 학생들의 교육 집중도가 낮으므로 경영 전문가 양성에 불충분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1998년에 경영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에 의해 경영전문대학원을 인가 받아 운영하고 있던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경기대학교의 사례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유사 교육과정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경영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경영전문대학원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주간 MBA 교육과정의 이상적인 틀로서 도입된 경영전문대학원 제도는 야간 경영대학원의 폐지라는 인가조건의 제약을 기피하는 대학교들에게 외면당하여 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교육부는 야간과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경영전문대학원 제도를 2006년에 실시하였다. 새로운 제도에서 6개 대학교가 2006년 9

* 본 연구의 일부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연구과제로 수행된 '경영전문대학원 성공적 도입방안 연구'에 기초함.

** 두 번째 저자의 연구는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됨.

월부터, 5개 대학교가 2007년 3월부터 경영전문대학원을 운영하도록 인가 받았다. 성균관대학교는 새로운 제도의 경영전문대학원으로 인증(재인가) 받아서, 현재 구 제도에 의한 경영전문대학원이 2개교, 새 제도에 의한 경영전문대학원이 11개교이다. 경영전문대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주간과 야간 과정의 비중, 최소 이수학점, 교육기간 등의 이슈를 논의한다. 이 연구 결과는 실무 중심의 경영학 석사과정(MBA)를 경영전문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 체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이 효과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정책 당국이 경영전문대학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II. 선행연구

경영학 대학원의 실무중심 전문가양성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실무 중심 경영학 교육의 개선을 위한 연구로 Alluto(1997)를 들 수 있다. Alluto(1997)는 미국의 경영대학원에 대한 비판으로 높은 등록금 문제, 종신고용(tenure) 교수에 의한 실무와 괴리된 연구, 시대에 뒤떨어진 교과과정, 일시적 유행에 따른 교과과정을 제시한 후, 미국 경영대학원이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들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실무 중심의 경영학 대학원 과정을 운영한 개별 대학교의 사례이다. 서강대 경영대학원 과정을 다룬 강호상 외(1997), KAIST 경영대학원을 소개한 안병훈 외(1997), 성균관대의 경영전문대학원을 소개한 장영광 외(1999), 연세대의 경영학 석사과정을 논의한 손성규(2003)가 있다. 강호상 외(1997)는 서강대 경영대학원 과정을

중심으로 경영대학원 교육과정을 고객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향후 경영교육의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최고경영자과정과 석사과정 졸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산학협동과 사례연구를 통한 실무적용교육, 공동체 의식과 인간관계 등을 중시하는 인성교육, 국제적 감각을 심어 주는 세계화 관련 교육 등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임을 보였다.

안병훈 외(1997)는 KAIST 테크노 경영대학원의 5개 집중 분야(경영관리, 기술/환경경영, 정보/통신경영, 국제경영/통상 및 산업경제/정책)로 구성된 경영공학전공의 석박사과정(ME/Ph.D.)과 기술경영, 금융공학, 경영정보, 통신경영/정책전공의 4개의 특수전공 석사과정(MBA)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장영광 외(1999)는 최초로 인가된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이 어떻게 교육개혁을 추진하였고 어떠한 향후 과제와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당시 진행중이었던 핵심사업계획 및 중점추진 사항들도 함께 보고하여 MBA교육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쟁점들이 무엇인지 밝혔다. 손성규(2003)는 연세대학교가 지난 수년간 운영하여 온 다양한 국제 연계 MBA 과정을 소개하고 이들 과정을 운영하면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경영학 석사과정 학사제도에 대한 연구이다. 신동엽(1999)은 제도이론적 관점에서 경영학 전문대학원안의 문제점을 보았다. 정부 주도 제도 개편의 자발성과 점진성의 결여에서 오는 위험성, 소수 관료들에 의한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이 가지는 문제점, 기업구조조정 논리의 교육조직에 대한 무비판적 적용, 미국 경영학 교육제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이해, 미국식 MBA 중심 교육제도의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 환경과의 부적합성, 경영학의 학문적 특성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에

서 초래된 오류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세 번째 유형의 연구로 실무중심 경영전문가 양성을 위해 1999년에 도입된 경영전문대학원 제도의 현황과,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성균관대학교가 1999년에 경영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후, 세종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단지 2개의 종합대학교만 추가로 인가를 받았으며, 이들 2개 대학교는 사실상 석사 과정을 야간에 운영하여 특수대학원과 차이가 없는 운영을 하고 있다. 수년전에 KDI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단설 대학원 대학교에서 경영전문대학원과 동일한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새로운 현상이었다. 경영전문대학원 제도가 오랜 기간 정착하지 못하고 있던 이유는 경영전문대학원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인가조건과 주간 MBA 교육 수요 부족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06년에 새로운 경영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었고 야간과정의 허용, 2단계 BK21 사업과의 연계 등의 효과로 현재까지 11개 경영전문대학원이 추가되었다.

III. 경영전문대학원과 MBA

3.1 경영전문대학원 제도

3.1.1 대학원 제도의 비교

경영전문대학원은 다른 전문대학원과 마찬가지로 실무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존의 일반대학원은 학문 중심의 연구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특수대학원은 직업인의 계속 교육을 목

적으로 하는 것과 대별 된다. 특수대학원도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나 야간 수업으로 진행되는 점이 특색이다. 2006년부터 경영전문대학원은 기존의 일반대학원, 경영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을 포괄하는 새로운 제도로 출발하였다.¹⁾ 과거에는 경영전문대학원이 주간과정만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야간과정이나 주말과정도 허용한다. 또한 일반대학원에서 운영되던 학문 중심의 학술학위 과정도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운영할 수 있다.

석사학위의 최소이수학점이 일반대학원은 24학점, 경영대학원은 24-30학점인 반면, 2006년부터 인가되는 경영전문대학원은 전문학위인 MBA는 45학점을 요구한다. 2006년 이전에 인가된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최소이수학점은 각 대학원 별로 다르게 인가되었다. 경영학 박사과정이 존재하는 경영전문대학원은 기존의 경기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과 신설된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재인가(인증)된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뿐이며 대부분 일반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운영한다.

학문 중심의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거나, 실무 중심의 경영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에서는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논문작성 요구여부를 결정하거나 학생들이 선택하게 한다. 이상의 대학원 제도 비교가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3.1.2 경영전문대학원의 인가조건

2006년 이전까지 종합대학교 중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경기대학교만이 경영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는 1998년에 인가를 받아 경영전문대학원을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 인가조건

1) 2006년 이전에 인가된 전문대학원은 원칙적으로 주간 과정이었으나 사실상 야간 과정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2005년 통계에서 전체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직장인이 약 39%이며 특히,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약 50% 정도인 것은 상당수 전문대학원 과정이 야간이나 주말에 진행됨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표 1〉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른 경영학 대학원의 분류

구 분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특수)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2006년 이전 구 제도)	경영전문대학원 (2006년 이후 신 제도)
교육목적	학문중심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계속교육 (직업인 또는 일반 성 인을 위한 계속 교육)	실무중심의 전문인력 양 성(전문직업분야 인력양 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 론의 적용과 연구)	실무중심의 주야간 MBA 과정, 학문중심의 과정 공존
수업방식 원칙 ²⁾	주간	야간, 계절제	주간	주간, 야간, 주말
설치과정	석사, 박사	석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수여학위	학술학위	전문학위	전문학위, 학술학위	전문학위, 학술학위
석사 최소이수학점 ³⁾	24학점	24학점 (논문미작성시 30학점)	24 - 48학점 (과정별로 개별 인가)	MBA 45학점, 학술학위 24학점
논문작성	의무적	선택적	선택적	MBA 선택적, 학술학위 의무적

은 경영대학원 또는 일반대학원 관련 석사과정의 폐지,⁴⁾ 독립 교육공간 확보, 전임교수 확보이었다. 세종대학교가 경영전문대학원을, 경기대학교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을 2001년 3월에 설립할 때의 조건은 전임교원과 전용공간의 확보와 경영대학원(야간)의 폐지이었다. 그 후에 모든 전문대학원의 인가조건으로 관련 학부과정의 폐지가 추가되었으나, 경영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부폐지는 요구되지 않고 관련 특수대학원의 폐지만이 요구되었다.

3.2 MBA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미국의 MBA 과정을 모델로 삼아 도입되었다. MBA는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의 약자로 번역을 하면 '경영학석사'이다. 우리나라의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경영대학원 석사도 경영학석사이므로 영어로 표기할 때는 MBA이나, 그 과정의 성격이나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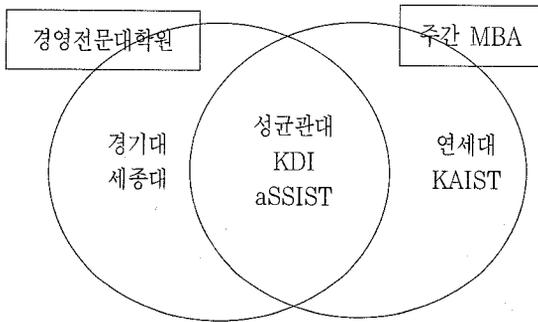
학점의 양에서 미국의 MBA과정과 다르다. 기존의 경영학 석사 과정과 차별화하여 미국식 MBA 교육을 시도한 것이 경영전문대학원 MBA과정이다.

미국의 MBA과정은 주간(daytime, full-time) MBA과정, 야간(evening) MBA, Executive MBA가 같은 경영대학원 내에 공존한다. Executive MBA는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주로 주말에 진행된다. 수업방식으로만 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처음 의도한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주간 MBA 과정이며 야간 MBA, Executive MBA에 대한 고려는 없었으나, 2006년부터 야간 MBA과정을 포함하여 고려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주간 MBA 과정의 제도적 틀로서 경영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를 수년 전에 만들었다. 그러나 경영전문대학원 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난 7년간 경영전문대학원 제도는 정부의 의도대로 확대되지 않았다. 경영전문대학원으로 인가 받았지만, 사실상 야간MBA나 과거의 특수대학원과 동일한 방

2) 성균관대학교는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와 회계학과 석사과정의 폐지를 선택하였다.
 3) 수업방식 원칙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전문대학원은 일반적으로 전일제 주간과정을 원칙으로 한다.
 4)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규정한 최소학점이며 개별 과정은 자체적으로 그 이상의 최소학점을 규정할 수 있다.

식으로 운영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반대로 경영전문대학원의 인가 없이 사실상 주간 MBA로 운영하는 과정이 있었다. 경기대와 세종대의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사실상 야간과 주말 MBA로 진행되고 있다. KAIST의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일반대학원 체제에서 테크노 MBA를, 연세대학교는 특수대학원 체제에서 글로벌 MBA라는 실무 중심 주간 MBA 과정을 2006년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연세대학교는 2006년 2학기 경영전문대학원이 출범하면서 이 과정은 Global MBA track으로 전환하였다. 성균관대학교와 수년 전에 대학원대학교 인가를 받은 KDI 정책대학원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만이 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주간 MBA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⁵⁾ 2006년 이전에 존재하던 경영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와 주간MBA 과정이라는 내용의 이러한 괴리를 다음 그림이 보여준다.



이러한 괴리가 생긴 이유는 경영전문대학원의 엄격한 인가조건을 대학교들이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균관대학교가 경영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을 당시의 조건이었던 일반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 폐지와 별도의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임명을 다른 대학들은 그 당시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교수들은 혁신적인 주간MBA 교육을 시도하고자 일반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폐지하

였으나, 그 폐해인 연구조교인력의 부족, 학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중간고리로서의 석사과정의 상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영전문대학원 별도의 전임교수 임명의 문제는, 경영전문대학원 출범 당시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분야 모든 교수가 소속이 학부이든 경영전문대학원이든 모든 의사결정에 같은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합의를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성균관대가 일반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폐지하여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은 반면, 사실상의 주간 MBA 과정을 일반대학원이나 야간대학원 체제에서 실시함으로써 학문 중심의 석사과정과 MBA 교육을 같이 진행하는 혜택을 누린 대학교도 있다. KAIST가 학문 중심의 경영공학 석사과정과 테크노 MBA를 공존시키고 있으며, 연세대도 일반대학원 체제에서 MBA 과정을 시도하다가 중단하였다.

성균관대의 인가 후에는 전문대학원의 인가조건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대신 경영대학원의 야간 석사과정의 폐지로 변경되었고, 이 요구조건도 대학교들이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경기대학교와 세종대학교는 경영전문대학원을 인가 받은 후 실질적인 야간과정의 운영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특히 경기대학교의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은 졸업학점조차 야간 경영대학원 수준이어서 전문대학원이라고 볼 수 있는 특징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연세대학교는 경영전문대학원 인가를 받는 대신에 특수대학원 체제에서 '글로벌 MBA'라는 주간 MBA 과정을 성공적으로 2006년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KDI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은 학부과정이 없는 단설 대학원대학교로 출범하면서 야간MBA 과정을 주간MBA 과정과 별도로 운영하거나, MBA 과정을 주간과 야간의 혼합 형태로 운영하여 야간교육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

5)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은 경영전문대학원으로 인가 받지 않았으나, 전문대학원의 틀에서 주간 MBA 과정을 운영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경영전문대학원으로 분류한다.

2005년부터는 경영전문대학원을 인가 받기 위해 서 경영학 학부과정마저 폐지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 경영전문대학원 제도가 더욱 외면당하였다. 경영전문대학원의 인가조건은 엄격하면서도 기존의 일반대학원이나 경영대학원에 비해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2006년까지의 제도에서 대학교들이 경영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동기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새로운 경영전문대학원 제도를 2006년부터 도입하면서, 야간과정의 공식인정, 1년 석사과정 조건부 허용, 2단계 BK 사업비의 경영전문대학원 배정 등을 통하여 많은 대학교들의 경영전문대학원 신설을 유도하였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최소 졸업학점의 45학점으로서의 상향조정, 주간과정 영어수업 50% 이상 유지, 인턴십 등의 다양한 실무 중심 교육 실시를 요구한다.

IV. 국내 경영전문대학원과 MBA 과정

4.1 2006년 이전부터 운영 중이던 경영전문대학원

2006년 이전의 구 제도에서 운영 중이던 경영전문대학원은 종합대학교 3개교와 대학원대학교 2개교이다. 그 현황은 요약은 <표 2>와 같으며 각 과정에 대한 설명이 다음 절에 이어진다.

4.2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4.2.1 과정구조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는 인가 당시부터 지속되어 온 s-MBA와 2004년도에 신설된 'MIT

연계 MBA' 과정이 현재 공존한다.

4.2.2 s-MBA

성균관대학교는 경영전문대학원을 1998년 3월에 국내 최초로 설립하였다. 인가조건은 전임교원과 전용시설의 확보였다. 또한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와 회계학과 석사과정의 폐지도 요구되었다.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출범 당시부터, 일반 경영학석사(general MBA) 트랙과 회계전문가 특화 트랙으로 운영되었다. 회계학 특화 석사과정은 경영전문대학원 출범 전에 존재하던 일반대학원 회계학과 석사과정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회계학 석사(Master of Science in Accounting) 과정을 모델로 회계전문가 양성 특화과정으로 설계되었다. 이 전체 석사과정을 수년 전부터 s-MBA로 부르고 있다.⁶⁾ 졸업이수학점은 45학점이며 학위논문은 작성하지 않는다.

일반대학원에서 경영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면서 강조된 부분이 국제화와 실무 중심 교육이었다. 국제화된 교육을 위해 과정 출범 당시에 비즈니스 영어를 위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Business Communication) 과목을 두 학기 필수과목으로 매일 1시간씩 진행하다가 최근에는 3학점 선택과목으로 전환하였다. 전공과목 영어강의도 점차로 늘려 현재는 일반 경영학 석사 트랙의 전 과목이 영어로 진행된다. 또한 미국과 프랑스의 경영대학원과 교환학생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여름 방학에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저명교수를 초빙하여 단기 여름학기 수업을 한다.

국제화된 교육과 실무 중심 교육을 위해 국제적인 비즈니스플랜 대회인 Asia Moot Corporation competition에 참가하여 왔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6) s-MBA의 s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재단 등을 나타낸다. 2007년부터 s-MBA는 아시아 지역 특화 경영전문가를 양성하는 Asia MBA로 전환된다. 아시아 지역 MBA 과정과의 교류강화, 아시아 언어와 지역학 및 아시아 특화 과목 신설 등의 특색이 추가된다.

〈표 2〉 2006년 이전 기존 경영전문대학원 현황

대학원명		입학 정원	학위 종류	수업 형태	수업 연한	학생 구성	이수 학점	실습여부 /영어	졸업 논문
성균관대	s-MBA	70	전문	주간	2년	전업학생 (파견 20%)	45	6학점(선택) /영어강의	없음
	MIT-MBA	30	전문	주간	2년	전업학생 (30% 파견)	54	3개월(의무) /영어강의	없음
세종대	SS-MBA	40	전문	야간 (주말보충)	2년	대부분 직장인	48	없음 /영어강의	없음
	K-MBA	40	전문	야간	2년	"	36	없음 /없음	선택
서울과대학종합대학원	리더십	15	전문	주간	2년	직장인 50%	66	4개월(필수) /영어 60%	작성
	금융공학	35	전문	주간 야간	1.5년	"	48	4개월(선택) /영어 80%	작성
KDI		80 (석사)	전문	주간 또는 야간	2년 (1.5년)	직장인 70%	36	없음 /영어강의	선택
경기대(서비스경영전문)		석 30 박 10	전문	야간	2년/3년	직장인	24 /36	없음 /없음	작성
소계 (5개)		350							

(2006. 3. 16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유명 MBA과정 학생들이 매년 참가하여 구상중이거나 추진 중인 벤처사업 아이템 등을 발표하는 대회이다. s-MBA는 1999년에 처음으로 이 대회에 참가했으며 2000년에는 Outstanding Presentation Award와 Honorable Mention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2003년에는 12팀 중에 4위권에 들게 되어 Finalist상과 Outstanding Business Plan상을 수상했다.

실무 중심 교육을 각 과목에서 실시하며, 방학기간 중 약 4주~8주간 실시되는 인턴십 과정은 MBA과정에서 배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실무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실무적 교육을 위해 MBA 포럼(수요 특강)을 진행해왔다. MBA 포럼은 한 학기동안 특정주제를 정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매주 초청해 특강을 듣는 것

으로 MBA 수업에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보충학습이다. MBA 포럼은 조직과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 및 활용에 대한 다각적인 주제의 특강도 열고 있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취업특강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다.

4.2.3 교과과정

선수학습(Pre-term) 과목으로 회계학 기초, 통계학 기초, 수리분석 기초, 정보기술 기초를 1학기 개강 전 2월에 2주간 총 약 60시간 정도 교육한다. 이는 필요에 따라 학생들이 임의로 선택하는 교육이며 학점은 없다. 1, 2학기에는 경영전반에 관한 기본적 수업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기술 습득을 위해 영어수업에 중점을 두고 3, 4학기에는 전

문적이고도 실무 중심의 각 분야별 수업이 진행된다.

4.2.4 운영상의 문제

성균관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경영전문대학원 인가를 받고, 몇 년간 국내의 유일한 경영전문대학원을 운영하였다. 그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이어서 전문대학원에 대한 사회인식이 전반적으로 없었다. 취업을 위한 인터넷 원서 작성시에 (야간)경영대학원과 일반대학원만 표기가 가능하여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경영전문대학원 설립조건으로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와 회계학과 석사과정이 폐지되어 연구조교 인력의 부족, 학사와 박사 과정의 연결 단절의 문제가 있다. 박사과정이 크지 않고 전업(full-time) 박사과정생이 많지 않아 연구조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가진다. 대부분의 MBA 학생이 연구보다는 취업준비에 관심이 있으며, 45학점의 많은 이수학점과 많은 양의 개인과제와 팀과제로 인해 연구조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또한 졸업논문의 부재가 연구에 대한 관심 부족과 교수와의 개인적 접촉 감소를 초래하여 연구조교의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4.2.5 'MIT 연계 MBA'

성균관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New Business School의 출범 및 운영을 위한 전략으로 기존 과정과는 차별화된 'MIT연계 MBA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경영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중 30명을 활용하여 MIT연계 MBA 과정을 2004년 9월 신설하였다. 2004학년도에 한국학생 24명과 유럽과 아시아의 외국인 12명이 처음 입학하였다. 100% 영어강의이며 성균관대 학위를 수여한다.

MIT의 경영대학(Sloan School)과 2003년 9월에 양해각서(MOU) 체결하여 전략적 제휴를 하였다. MIT는 MBA 커리큘럼, 사례연구 등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본교 교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파견을 MIT로 8년간 매년 최대 5명씩 5개월간 실시하기로 하였다. MIT 교원이 성균관대에 파견되어 매년 2과목 강의(과목당 3주)를 담당한다. MIT연계 MBA 과정의 희망 학생은 심사를 통과하면 2년차에 MIT Sloan School에서 최대 1학기 동안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MIT 연계 MBA 과정의 조직 편제 및 운영은 기존 국내 교육과정을 완전 탈피하여 세계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총장이 직접 관장하기로 하였다. 교내 기존 과정과 차별되게 독립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사, 급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제정하여 총장 결재 후 시행한다. MIT 연계 MBA 과정은 경영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사용하나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4.3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4.3.1 과정구조

세종대학교는 2001년 3월에 특수(야간)대학원이었던 세계경영대학원을 중단하고 경영전문대학원을 인가받았다. 경영전문대학원에는 시라큐즈 대학교와 공동으로 영어로 진행하는 SS(세종대-시라큐즈) MBA와 한국어로 진행하는 K(Korean)-MBA가 있다. 세종대학교에는 경영전문대학원 이외에 경영학부, 일반대학원의 회계·경영학과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이 있다.

4.3.2 SS-MBA (세종대-시라큐즈 MBA) 과정

SS-MBA는 야간·주말 과정이다. 주중에는 저

녁 7시부터, 토요일에는 2시부터 수업한다. 정원은 50명이다. 시라큐즈대 경영대학원 교수들이 직접 와서 과정의 1/2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전과목의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 정규학기는 4학기이며 4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졸업시에는 세종대 MBA학위, 시라큐즈대 수료증을 수여한다. 그러나, 소정의 추가과정을 거치면 시라큐즈 MBA 학위도 받을 수 있다. 1년에 약 2~3주만 시라큐즈에서 공부하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인터넷과 전화로 공부하는 Independent Study MBA 과정을 이용하면, SS-MBA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과 학점은 상당부분 그대로 인정받으므로 시라큐즈 MBA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3.3 K(Korean)-MBA 과정

한국어로 진행하는 주말과정이며 정원은 40명이다. 선택과목 18학점 중에서 6학점은 졸업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총 36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36학점 중 필수과목학점은 18학점이고, 선택과목에서 18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4.4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전문직 종사자 양성을 목적으로 2001학년도부터 기존의 특수대학원인 '경영대학원'에서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으로 전문화·특성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경영, 서비스마케팅 및 컨설팅, 외식벤처창업경영, 서비스투자컨설팅, 부동산금융·투자, 관광서비스경영, 외식컨설팅경영, 보석마케팅 및 벤처창업전공으로 설치되었다. 현재,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모두 개설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매년 석사 40명, 박사 10명의 정원으로 입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졸업이수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 박사학

위과정은 36학점이다. 본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과 주말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칙에서 정하였고, 현재 모든 과목이 야간에 개설되어 있다.

일반대학원에는 경영학과, 회계학과 석사와 박사 과정이 존재하며, 경영학과에는 마케팅관리, 생산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 전공이 있다. 경영학박사를 일반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같이 수여하는 것이 특이하다.

4.5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은 2004년 신설된 전문대학원이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이 모체가 되어 설립한 단설 대학원대학교이다. 이 대학원은 그 명칭만을 보면 어떤 전공분야로 분류할지 모호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과정이 경영학 석사 및 박사과정이다. '한국비즈니스 스쿨의 미래'라는 구호로 실무 중심의 MBA 과정을 추구하는 전문대학원으로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다룬다.

석사과정으로 비즈니스 리더십 전공과 금융공학 전공의 MBA 과정을 각각 30명씩 주간을 운영한다. 비즈니스 리더십 전공은 2년 과정(인턴십 미실시시 1.5년), 금융공학 전공은 1.5년 과정(1년 full-time 과정과 6개월 part-time 논문지도 과정)이며, 이수학점은 각각 66학점과 48학점(논문학점 포함)이다.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학점을 이수하는 집중적인 과정이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은 실무 중심 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전현직 CEO와 경영컨설턴트가 교수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2개월의 사회봉사 활동, 비즈니스 프로젝트 수행, 4개월간의 인턴십 교육, 해외교환학생 기간 등 졸업까지 일반 강의 외에 현장중심교육을 받는다. 전 강의 50% 이상을 영어로 진행한다. 미국 MBA와

달리 학위논문 작성은 필수적이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은 국내 MBA 과정 이외에 과거에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운영하던 외국대학교의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학교(ASU) W.P. Carey School (미국)의 ASU-Global SCM 과정,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의 법학석사(LLM)과정, 핀란드 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의 경영학석사(EMBA)과정, 미국 뉴욕주립대(SUNY) 스토니부룩의 기술경영 석사(MS-TM)과정을 해당 대학교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임교수진 중에 경영학 박사 소지자는 극히 일부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외부강사 의존율이 상당히 높다.

4.6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1997년에 설립된 KDI 국제정책대학원에는 경영학 석사(MBA), 경제정책 석사(MPP: Master in Public Policy), 투자경영학 (MFDI: Master'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3 가지 석사 학위 과정이 있다. 정책학 박사(Ph.D. in Public Policy)와 경영학 박사 과정도 있다. MBA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며, 주간 MBA와 야간 MBA로 구분된다. 주간 MBA 과정도 2년차는 직장근무와 병행 가능하다. MBA는 국제경영과 금융의 2 가지 전공이 있다. MBA와 MPP 과정은 2년차를 해외제휴 대학원에서 이수하면서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Global Master's Program(GMP)이 가능하다. MBA 정원 80명, 박사 10명을 전임교수 약 20명이 담당하나, 이 중 경영학박사 소지자가 5명뿐이며 대부분은 경제학박사 소지자이다.

MBA는 최저 3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최초 3 학기에 최소 30학점을 이수해야 논문제출자격이 주어진다. 4번째 학기에 적어도 6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는 논문이나 독자연구(SRC) 또는 강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수 있다. 논문, 독자연구 2 과목, 강의과목 2과목, 강의과목 1과목과 독자연구 1과목 중에 한 개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 논문을 쓰지 않는다면 직전 3학기동안 이수한 학점에 관계없이 2과목을 이수하거나, 독자연구 2과목을 해야 한다. 강의과목을 들어서 학점을 이수한 경우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7 2006년 이후 인가된 경영전문대학원

4.7.1 2006년 9월 개설 인가된 경영전문대학원

새로운 경영전문대학원 제도를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부터 도입하면서, 야간과정의 공식인정, 1년 석사과정 조건부 허용, 2단계 BK 사업비의 경영전문대학원 배정 등을 통하여 많은 대학교들의 경영전문대학원 신설을 유도하였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최소 졸업학점의 45학점으로의 상향조정, 주간과정 영어수업 50% 이상 유지, 인턴십 등의 다양한 실무 중심 교육 실시가 요구되었다. 경영전문대학원의 전임교수 확보가 처음에는 요구되었으나 이는 이후 완화되었다. 그 대신 경영전문대학원의 강화된 교수 학생 비율로 인해 경영학 전공 교수의 전반적인 인원 확대가 요구되었다. 경영전문대학원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인 연구비 지원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큰 정책 목표 하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대부분의 2차 BK 사업이 연구 관련 사업이었던 것에 비해서 경영전문대학원 사업은 교육사업인 점에 특이성이 있다.

새로운 제도에서 처음으로 2006년 9월부터 경영전문대학원을 개설할 수 있는 인가신청 접수가 2005년 말부터 진행되었다. 이 인가는 2단계 BK21 사업의 전문서비스 경영분야(경영전문대학원 MBA 분야)에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이었으므로 많은 대학교의 관심을 끌었다. 16개 대학교가 인가신청을

하였고 이 중 6개교(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가 승인되었다. 2006년 3월의 예비인가 내용은 <표 3>과 같다.⁷⁾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구 제도로 인가 받았으나 신

제도도 다시 인증을 받아 2006년 9월부터 기존의 야간 경영대학원을 경영전문대학원의 야간과정으로 통합하고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도 경영전문대학원 내의 학술박사과정으로 통합하였다. 같은 시점에

<표 3> 2006년 9월 개설 인가된 경영전문대학원

신청 대학	대학원 명칭	학위과정	'06 입학정원	수업연한	비 고
고려대	경영전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주간MBA)	120('07.3월)	1.5년	
		전문석사과정 (야간 MBA)	155명	2년	
		전문석사과정 (주말 E-MBA)	40명('07.3월)	2년	
		석사과정 (MS)	97명	2년	일반대학원에서 이관
서강대	경영전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주간 MBA)	100명	2년	
		전문석사과정 (야간 MBA)	100명	2년	
		전문석사과정 (주/야간 E-MBA)	32명	2년	
		석사과정 (MS)	40명	2년	일반대학원에서 이관
		박사과정	20명	2년	"
서울대	경영전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주간MBA)	100명	1.5년	
연세대	경영전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주간MBA)	100명	1.5년	
		전문석사과정 (야간 MBA)	157명('07.3월)	2.5년	
이화 여자대	경영전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주간MBA)	70명	2년	
		전문석사과정 (야간MBA)	70명	2년	
한양대	글로벌 테크노경영 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주간MBA)	60명	2년	
		전문석사과정 (야간/주말 MBA)	200명	2년	

(2006. 3. 16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7) 2006년 봄의 고등교육법 개정 후 6개 대학의 경영전문대학원은, 서울대와 고려대의 주간MBA 수업연한 1년으로 축소, MS과정 취소 등 추가조정 후 본인가 되었다.

구 제도로 인가를 받았던 다른 경영전문대학원이 신 제도로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였다.

은 <표 4>와 같다.

4.7.2 2007년 3월 개설 인가된 경영전문대학원

2006년 가을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3월 개설을 위한 경영전문대학원 인가신청을 추가로 접수하여 8개 대학교가 신청하였다. 8개 신청대학교 중 7개 대학교는 직전 인가신청에 탈락한 대학교 이었다. 8개 신청 대학교 중 동국대, 숙명여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정보통신대의 5개 경영전문대학원이 인가되었다. 5개 신규 경영전문대학원의 내용

V. 경영전문대학원 구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5.1 경영전문대학원 구 제도의 문제점

5.1.1 정책목적의 문제

경영전문대학원이 주간MBA 과정을 위한 가장

<표 4> '07년도 개교예정 경영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내용

대학	대학원 명칭	학위과정	'07 입학정원	수업연한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MBA(주간)	40명	2년
		" (야간)	100명	"
		CO-MBA(야간)	30명	"
		소계	170명	
숙명여대	호스피탈리티 경영전문대학원	H-MBA(주간)	20명	2년
		" (야간)	20명	"
		소계	40명	
중앙대	경영전문대학원	Global BRICs MBA(주간)	40명	2년
		MBA(야간)	80명	"
		소계	120명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	MBA(주간)	40명	2년
		MBA (야간/주말)	60명 (산학맞춤과정 20명 포함)	"
		소계	100명	
한국정보통신대	경영전문대학원	Global IT-MBA(주간)	30명	2년
		박사과정	10명	2년
		소계	40명	
합계	5개		석사 460명 (주간 170명, 야간 290명) 박사 10명	

(2006. 10. 2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바람직한 틀인가? 경영전문대학원과 같은 제도는 개별 대학교의 자율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될 수 있다. 또한 개별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나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를 유도하거나 또는 강제하기 위해 실시될 수 있다. 경영전문대학원 제도가 개별 대학교의 자율적인 MBA 교육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면, 지원 내용이나 방안이 있어야 하나 교육의 질을 위한 규제만이 강조되었는지 지원방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경영전문대학원이 MBA 교육의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것이라면, 경영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인 MBA 교육을 위해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이 교육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거의 없었다. 만약 경영전문대학원 제도가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 변화를 유도하거나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이는 경영전문대학원의 인가조건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MBA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여 나타난 현상이라 보인다. MBA 교육의 수요자(학생과 기업)와 공급자(대학), 즉 MBA교육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고려,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경영전문대학원과 기존 조직인 경영(특수)대학원과 경영학부와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진행된 결과로 보인다.

5.1.2 경영전문대학원과 경영대학원의 차별화 문제

경영전문대학원은 전업(full-time) 학생을 대상으로 주간에 수업을 하고, 경영대학원은 직장인의 계속 교육을 위해 야간 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구분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세종대학교과 경기대학교의 경영전문대학원은 야간과 주말에 수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KDI 국제정책대학원도 야간MBA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Global MBA 과정은 경영대학원 소속이나 전업학생의 주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경영전문대학원과 경영대학원의 주야간 구분이 무의미하다면 졸업을 위한 이수 학점 수만이 의미 있는 구분이다. 경영대학원의 졸업학점은 24학점이다. 그러나 경영전문대학원의 졸업학점이 일정하지 않았다. 성균관대는 45학점, 세종대와 KDI대학원은 36학점, 경기대는 24학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하였다.

5.1.3 정원 관리의 문제

2003년까지 경영대학원은 각 대학교의 여러 특수대학원의 하나이며, 각 대학교의 특수대학원 총 정원만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제하였다. 경영대학원의 정원은 대학교 내부적으로 특수대학원간에서 서로 조정 가능한 반면 경영전문대학원 정원은 개별적으로 통제되므로, 경영대학원이나 다른 특수대학원의 정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의 정원이 서로 교환될 수 없었다. 이는 경영전문대학원 정원에 대한 대학의 융통성을 저해 하였다.

2004년부터 대학원 정원조정이 자율화 되었다. 대학교의 대학원 총 정원 내에서 대학원 과정간의 정원조정이 자율화 되었다. 경영전문대학원은 정원에 대한 교원과 교사 확보율을 만족시키는 범위에서 정원 증가가 가능하다.

5.1.4 경영대학원 폐지 요구의 문제

1998년에 성균관대학교의 경영전문대학원 인가 조건은 일반대학원 경영/회계 석사과정의 폐지였다. 그 이후 경영전문대학원을 인가 받기 위해서 경영(특수)대학원을 폐지하여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경영전문대학원을 인가 받기 위해 특

수대학원인 경영대학원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 이는 주간 MBA 과정에 대한 수요보다 야간이나 주말 MBA 과정에 대한 수요가 더 크기 때문이며, 이는 홍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취업시장이 불안하여 직장인이 직장을 그만 두고 주간 MBA 과정에 들어오기를 꺼려한다.

기업 파견 학생의 경우는, 해당 직원이 주간과정을 다니면 업무를 볼 수 없으므로 기업에게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기회비용이 등록금 등의 실제 지출비용보다 더 크다. 등록금보다 2년간의 직원급여로 측정된 기회비용은 더 크다. 야간 MBA 과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기업은 많으나 주간 MBA 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효익분석은 가능하지만 미국에서의 MBA가 오늘과 같은 주간 형태를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대로 가치창조에 대한 확실한 시장에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MBA 무용론이 빈번하게 제기되지만 가장 효율적인 인력시장인 미국에서의 MBA의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위치를 국내의 MBA 과정이 보일 때 MBA교육에 대한 수요가 생성될 것이다.

IMF 외환 위기 때에 대학 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져서 주간 MBA 과정의 지원자가 늘어났다. 이 현상은 취업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것이므로 미국식 MBA가 추구하는 직장 경력자 위주의 학생 선발과는 상반되는 추세이었다.

야간 MBA 교육의 폐지 요구가 비현실적이란 것은 현재 경영전문대학원이나 다른 대학원의 형태로 MBA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대학교에 야간MBA 과정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성균관대에는 경영전문대학원의 주간 MBA 과정과 경영대학원의 야간 MBA 과정이 공존하고 있었다. 경기

대와 세종대는 경영전문대학원 MBA 과정을 야간과 주말에 운영하고 있다. KDI는 주간 MBA와 야간MBA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은 주간과 주간+야간 MBA 과정을 운영하면서 해외 MBA과정을 주말에 운영하고 있다.

5.1.5 학부 폐지 문제⁸⁾

2005학년도부터는 전문대학원 설치시 관련 학부 및 특수대학원 폐지가 요구되었다. 법학 전문대학원의 경우는 법학 학부과정이 없는 미국의 제도를 본받아 관련 학부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경영학 분야는 학부(undergraduate) 과정이 미국과 다른 모든 나라에 존재한다. 미국의 모든 주립대학에는 대규모의 경영학 학사과정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유명 사립대학, 특히 아이비(Ivy) 리그 대학에는 경영학 학사과정이 없는 곳이 많아 마치 경영학 학사과정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경영학 학부과정이 있든 없든 모든 주요 미국 대학교의 MBA 과정은 거의 동일한 교육과정에 의해 운영된다. 학부과정이 있는 경우, 동일한 경영학 교수가 학부와 MBA과정을 같이 담당하므로 경영학 교수진이 상당히 크거나(예, New York University의 경영학 교수는 약 200명), 학부에 대단위 강좌가 개설된다.

법학, 의학 전문대학원과 달리 경영전문대학원은 졸업자에게 국가자격증 지원자격 등의 혜택을 줄 수 없으므로, 경영학 학부과정 폐지를 인가조건으로 한다면 경영전문대학원의 인가신청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전문대학원 인가조건이 관련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폐지 ⇨ 특수대학원 폐지 ⇨

8) 경영전문대학원 인가를 위한 학부폐지 조건의 면제는 새 제도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예처럼 각 대학교 내부적으로 다른 단과대학 교수들에 의해 경영학부 과정의 폐지가 요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 문제를 논의한다.

학부 및 특수대학원 폐지로 강화된 것은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인가조건 강화가 교육과정 질의 향상을 달성하는 대신 경영전문대학원 제도 기피를 심화시켰다.

경영대학원 졸업장은 자격증보다는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서 가치 평가되도록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겨야 한다. 물론, 미국과 같은 전업 교육일 경우는 새로운 직장/직위와 급여로 이 가치가 평가되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MBA의 주된 시장이 파트타임 야간과정일 경우는 이러한 객관적인 가치측정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5.1.6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박사과정과의 관계

현재 경영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박사과정은 공존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다. 세종대학교와 경기대학교는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영전문대학원은 실무중심 교육을 지향하므로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전문학위가 수여되는 반면, 일반대학원은 연구중심 교육을 위해 학위논문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학술학위가 수여된다. 미국 대학교에는 경영학 학술석사학위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영대학원에 전문석사학위인 MBA 이외에 경영정보시스템, 회계 등의 세부 경영학 분야에 대한 MS(Master of Science) 과정이 존재하기도 하나, 이는 특화 전문석사 과정이지 연구논문을 쓰는 학술석사 과정이 아니다.

전문대학원에서도 전문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시부터 거론되었다. 또한 교육 전문박사 학위과정 설치를 추진하기로 교육인적부가 밝혔다. 미국 하버드대의 DBA(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를 경영전문박사 학위의 예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하버드 대학교의 DBA와 Ph. D in Business

Administration은 과정이나 학위의 차이가 아닌 경영학 세부전공의 차이이므로 미국에는 경영전문박사 학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전문박사 학위가 학술박사 학위와 어떻게 차별화 될 수 있는지, 왜 전문박사 학위가 필요한지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같은 석박사 공통과목들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경영학 세부전공별 박사과정생들이 충분히 많지 않으므로 박사과정생만을 위한 과목개설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영전문대학원의 MBA과정의 실무중심 교육목적과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연구중심 교육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교과목 통합운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박사과정만을 위한 과목으로 운영되면 많은 과목의 개설이 어렵다.

5.1.7 기타 사항

전문대학원 제도가 최근에 국내에 도입되었고, 초창기에 전문대학원이 도입된 분야가 법학이나 의학처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끈 분야가 아닌, 신학 등의 상당히 특수한 분야이었으므로 경영전문대학원의 존재를 알리는데 상당 기간 동안 어려움이 있었다.

미국의 3대 전문대학원(professional school)이 법학, 의학, 경영학 분야이나, 경영전문대학원은 법학, 의학 전문대학원과 달리 졸업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의 혜택이 없다. 변호사나 의사 자격증의 취득 자격과 같은 혜택이 경영전문대학원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학생이나 대학교가 경영전문가 양성 과정을 굳이 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수행할 필요를 못 느낀다.

경영전문대학원을 위한 전임 교수의 확보는 이상적인 점이나, 학부 교육과 대학원 교육 담당 교원을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재의 우

리나라 경영학 담당 교수의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요구 사항이다. 경영전문대학원의 경영학 전임교수의 별도 확보의 어려움은 대학원대학교인 KDI대학원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 경영학 박사학위 소지 전임교원보다는 외부강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고 알 수 있다.

5.2 가능한 해결방안과 새로운 제도의 변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간 MBA 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해 시도한 경영전문대학원 제도가 인가조건의 비현실성에 의해 주요 대학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경영전문대학원의 제도적 틀의 밖에서 주요대학이 주간 MBA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적 틀과 실질적인 운영 내용의 일치를 통한 효과적인 MBA 교육의 달성을 위해 경영전문대학원 제도의 틀이 덜 제약적이어야 하였다.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이 중 상당 부분은 2006년에 새로운 경영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해결되었고 일부는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5.2.1 경영대학원과의 통합 문제

구 제도에서 경영전문대학원의 인가조건으로 야간과정인 경영대학원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주요 대학교들이 경영전문대학원의 인가를 신청할 때 큰 걸림돌이었다. 각 대학교들이 경영대학원 또는 경영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주간, 야간, 또는 주말 MBA 과정을 임의대로 진행하고 있었다. 대학이 주간과 야간 MBA 과정을 동시에 같은 대학원 조직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경영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의 효과적인 통합운영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1) 방안 1: 경영전문대학원 제도 폐지, 경영대학원으로 통합

활성화되지 않는 경영전문대학원 제도를 폐지하고 경영대학원 체제로 통합하는 안이다. 경영대학원에서 주간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고, 주요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45학점 이상의 주간 MBA 과정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이 안은 과거의 연세대학교의 운영형태이었다. 공식적으로 경영대학원에서 주간MBA를 운영하도록 허용하며, MBA 주간/야간 과정의 효과적 통합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영전문대학원 제도의 포기라는 정책 반복의 부담이 있으며, 기존의 수준 낮은 경영대학원의 이미지가 변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외국의 경우, 경영대학원을 Professional Graduate School(전문대학원)의 한 종류로 보나 실제 경영대학원 명칭에는 전문대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경영전문대학원이라는 이름 대신 경영대학원의 이름으로 각 대학교가 질적 개선을 추구하게 하는 방법이다. 단기적으로 변화와 개선이 이름변경이나 새 제도 도입 등의 가시적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경영전문대학원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각 대학교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지 하는 면에서는 이 방안이 미국과 유럽의 모형과 같다.

(2) 방안 2: 경영대학원 폐지, 경영전문대학원으로 통합

경영대학원을 경영전문대학원으로 통합하도록 허용하는 안이다. 원하는 대학교에게 현재의 경영대학원 정원을 경영전문대학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주간MBA와 야간MBA를 같이 운영하며 같은 졸업학점(예, 45학점)을 이수하게 요구한다. 이 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MBA 제

도와 같으며 현재 KDI MBA가 이처럼 운영되고 있다.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주간과정과 동시에 야간 또는 주말 과정을 통합운영 하도록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안이다. 이 방안은 야간 MBA 교육의 내실화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미 몇몇 경영대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졸업학점을 높이고 있으므로 가능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기존 경영대학원의 24~30학점인 졸업이수학점이 상향조정되는 부담이 학생, 파견 기업, 대학교에 존재한다. 이 안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새 제도로 채택하였다.

(3) 방안 3: 경영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 동시 운영 허용

야간 과정의 경영대학원과 주간과정의 경영전문대학원의 동시 통합운영을 허용한다. 이 방안은 성균관대학교의 2006년 이전 상황과 유사하다. 성균관대학교는 경영전문대학원을 인가 받을 때 야간 경영대학원 폐지를 요구받지 않았으므로 두 가지 대학원이 공존하였다. 행정적으로는 별개의 대학원 과정으로 졸업이수학점도 다르나, 개별 대학교가 통합운영하거나 별개의 행정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과거보다 과목 교류나 공동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두 대학원 조직을 공동 운영하는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강인원이 너무 적은 전공심화과목에 주야간 MBA 학생의 참여를 허용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5.2.2 경영전문대학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

(1) 최소 과정 연한의 축소

미국의 2년제 MBA 과정에 1년 과정이 신설되는 추세이다. 유럽 MBA는 1년 과정이 대부분이다. 교육기간 단축은 주간 MBA 과정 기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우리

나라는 현재 석사과정이 정상적으로는 2년, 단축시 1.5년에 가능하게 되어있다. 미국의 10주 단위 Quarter 식 학기의 운영이나 여름/겨울 계절학기의 운영으로 최저요구학점을 1년에 이수하여 석사 과정을 달성할 수 있게 허용되어야 한다. 1년 기간의 MBA 과정은 새로운 제도에서 서울대와 고려대의 AACSB 인증 경영대학의 MBA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시험적으로 허용하였다.

(2) 해외대학 복수/공동 학위 운영의 융통성 향상
현재 공동학위(joint degree)는 제도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으며 복수학위(dual degree)는 몇 개 MBA과정이 시도하고 있다. 복수학위제도는 이수 학점, 입학조건 등의 제약으로 운영이 용이하지 않아, 매우 소수의 경영전문대학원에서 매우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교과과정의 일부가 해외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MBA 과정이 국내대학이나 해외대학의 1개 대학교만의 학위가 수여된다. 현재 석사 2년 과정을 기준으로 1년간을 국내에서 이수하는 경우에만 국내학위가 가능하다. 이를 기간 기준이 아닌 학점 기준으로 총 학점의 반 이상을 국내에서 이수하는 경우, 국내학위가 가능하게 변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5.2.3 학부 폐지 문제

사법고시, 의사고시, 교사임용고시와 같이 국가 자격증 응시자격을 주는 법학, 의학,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전문대학원의 인가조건으로 관련 학부(학사)과정을 폐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학부가 폐지되면 전공 교수들이 대학원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영전문대학원을 위하여 경영학부과정과 특수대학원을 모두 포기할 주요 대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원보다는 출

신 학부를 중시하는 현재의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경영전문대학원을 위해서 경영학부 과정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 요구조건은 경영전문대학원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전문대학원 교육의 질은 학부 폐지보다는 해당 교수진과 학교당국의 끊임없는 노력과 사회의 평가에 의해 높아질 수 있다.

5.2.4 경영 전문박사 학위 수여 문제

일반대학원 경영학 학술박사 학위와 별도로 경영전문박사 학위를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수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외국 사례가 거의 없고 그 필요성도 아직 인식되지 않고 있다.

학술 연구 능력의 훈련과 연구 논문의 작성이 학술 학위과정의 핵심이라면, 전문 학위는 실무 전문 지식 소유와 그 활용 능력에 기초하여 수여될 수 있다. 경영 전문박사학위가 수여된다면 그 대상자는 오랜 동안 실무계에서 일한 50대 이상의 실무 전문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실무전문가의 일부는 현재 파트타임으로 학술박사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학위 취득 후 거의 연구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연구능력보다는 학위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실무자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로 경영 전문박사학위가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학술연구 능력이 배제된 전문지식에 기초한 전문박사학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제도는 오히려 공학 분야의 기술사 자격증과 유사할 수 있다.

또한 전문박사학위와 학술박사학위의 자격상의 구분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 가지 예로, 전문박사 학위 소지자는 연구 능력이 부족하므로 전임교원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여 강의전담교원으로만 임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5.2.5 경영학 학술박사학위의 수여

만약 일반대학원 학술 연구기능까지도 전문대학원이 흡수한다면, 전문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운영하면서 경영학 학술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제도에서 인가 또는 인증을 받은 서강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영전문대학원은 경영학 학술박사과정을 일반대학원으로부터 통합하였다. 경영전문대학원을 신규 인가 받은 나머지 대학교들은 여전히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 학술박사학위와 학술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전문대학원이 일반대학원을 흡수 통합하지 않은 채, 학술박사학위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같은 대학교의 경영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 학술박사학위를 동시에 수여하는 예로 경기대학교가 있다. 경기대 일반대학원에서 일반적인 경영학 전공인 마케팅관리, 생산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 회계학 분야의 경영학 학술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에서 서비스경영, 서비스마케팅 및 컨설팅, 외식벤처창업경영, 서비스투자컨설팅, 부동산금융·투자, 관광서비스경영, 외식컨설팅경영, 보석마케팅 및 벤처창업전공의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있다. 세부전공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부분류로는 경영학 학술박사이므로, 실무 중심 교육을 지향하는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경영학 학술박사학위를 이중으로 수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경우의 예에서처럼 실무전문가 중심의 교수진으로 MBA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 교수진으로 학술박사학위를 주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Harvard Law School 부원장을 역임한 David N. Smith 원장을 포함한 전임교수가 8명이나 이중 경영학 박사가 2-3명에 불과하며 이들도 학계가 아닌 실무계에서 주로 활동하여 왔다. 이러한 교수진 구조로

경영학 학술박사학위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결론적으로 경영학 학술박사학위를 같은 대학교의 두 대학원에서 이중으로 수여하거나, 경영학 박사학위 소지 전임교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전문대학원에서 경영학 학술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부적절한 운영으로 보인다.

VI. 결론

6.1 과거의 상황

국내 MBA 교육시장은 최근 몇 년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한 국내대학교들이 과거의 연구중심의 일반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과 직장인 재교육을 위한 야간 경영대학원에 추가하여 경영전문가 양성을 위한 주간 MBA 과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외국대학교 MBA 과정이 국내 대학이나 기관과 제휴하여 국내에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몇 년 전에 도입한 경영전문대학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점점 중요시 되고 있는 국내 주간 MBA 교육의 제도적 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왔다. 주간 MBA 교육과정의 이상적인 틀로서 도입된 경영전문대학원 제도는 야간 경영대학원의 폐지라는 인가조건의 제약을 기피하는 대학교들에게 외면당하여 왔다.

2006년까지 경영전문대학원의 틀에서 MBA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경기대학교뿐이었다. 성균관대는 당시 인가조건이 야간 경영대학원이 아닌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의 폐지이었고 그 당시 인가조건이 특수대학원 폐지이었다면 성균관대조차 인가신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 후 인가를 받은 세종대

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야간 경영대학원을 폐지하였으나 사실상 MBA 과정이 야간과 주말에 진행되었다. 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의 경우, 야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이수학점도 경영(특수)대학원의 24학점 수준이므로 사실상 특수대학원이 아닌 전문대학원으로서의 아무런 차별점이 없다. 이러한 현실은 야간 경영대학원 과정 폐지를 요구하는 당시의 인가조건이 비현실적이며, 과거의 경영전문대학원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계속될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국가자격증 응시자격의 큰 혜택을 주는 법학, 의학 전문대학원과 달리, 경영전문대학원은 졸업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도적으로 줄 수 없으므로, 기존의 종합대학교가 사회적 요구가 큰 경영 특수대학원을 포기하고 경영전문대학원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다. 주간 MBA보다 큰 야간 MBA 교육의 수요는 취업불안, 경력직 취업시장의 부족 등 미국과 다른 한국의 노동시장의 특성에 의한 것이며, 이는 우리보다 서구화된 홍콩에도 주간 MBA 과정보다 야간 MBA 과정이 활성화된 점에서도 볼 수 있다.

6.2 새 제도의 도입

MBA 교육이 경영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적 틀에서만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야간 경영대학원과 주간 경영전문대학원의 이분법적 구분이 무의미하였다. 경영(특수)대학원의 틀에서 경영전문대학원의 주간 MBA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오직 다른 점은 대학원의 명칭이며 심지어 학위명도 전문석사로 동일하다. 사실상 수준 높은 주간 MBA 과정을 위해 별도의 대학원제도가 필요한지도 불분명하다.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과 분리된 개념으로, 강화된 인가조건을 요구하는 경영전문대학원 제도는

부분적인 제도 개선만으로는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경영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의 조직적 개념적 분리가 달성하는 정책적 목표가 MBA 교육의 질 향상이었다면 이 목표는 지난 수년간 경영전문대학원 제도에 의해서 달성되지는 않았다. 이는 경영전문대학원 인가조건 달성과 전문대학원 명칭이 주는 사회적 권위나 브랜드 가치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원 체제보다는 MBA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교의 명성과 브랜드가 더 큰 힘을 발휘하여 왔다.

국내 MBA 교육의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차별화된 경영전문대학원 제도를 사용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에 새로운 경영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여 야간 MBA 과정을 허용하면서 경영대학원보다 높은 이수학점만을 요구하였다. 또한 경영전문대학원에 경영대학원이 가지지 못하는 재정적, 행정적 혜택을 주었다. 2단계 BK21 사업에 MBA 분야를 추가하여 4개 대학원이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재정지원 대상 대학원이 몇 년마다 교체되므로 잠재적인 수혜대상 대학교는 계속 경영전문대학원 도입에 적극적이다. 일부 대학원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이수기간을 현행 1.5년 - 2년에서 계절 학기를 활용한 1년으로 단축시켜 주어서, 경영전문대학원 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경영전문대학원에 복수학위나 공동학위 운영상의 혜택을 줄 수도 있다.

이외에도 경영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고민할 내용이 많다. 현재 주간으로 운영되는 과정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 주간 MBA 시장이 충분히 존재하는지가 의문이다. 주간 MBA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원인이 MBA 교육이 부가가치를 산출하지 못하여서인지 아니면 시장이 MBA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서인지도 의문이다.

경영 환경이 이미 국제화되었기 때문에 현재 진

행되는 주간 MBA 과정은 영어로 진행되는 과정이 많은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대부분의 우리나라 경영학 교수의 영어강의로부터 학생들이 얻는 것이 더 많은지 옳는 것이 더 많은지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외국 유수의 경영대학원에 유학을 가려는 학생들을 정부의 유출을 막고 국내의 경영대학원이 흡수하여 제대로 된 경영학 교육을 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경영전문대학원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모대학이 과거에 미국의 유수대학과 복수 학위과정(dual degree program)으로 진행한 경영학 석사 과정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듯이, 경제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능력이 되는 학생들은 국내의 경영전문대학원이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한다고 하여도 외국의 경영대학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 대학에서의 MBA의 취득은 단순히 학위 취득의 의미뿐만 아니라 국제화되는 경영환경에서 교육생 자신을 국제화한다는 의미도 크다. 국내의 경영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한국경영인증원이 2005년 11월 창립되었다. 자율적인 품질관리 기관으로서의 인증원의 역할을 유심히 관찰하여야 한다. 인증도 중요하지만 인증 과정에서 경영대학 자체적으로 양질의 경영학 교육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우리나라 경영학 교육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최근 일부의 야간 경영대학원에서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고 취득 학점을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지원자의 수에 영향을 받지 않은 점을 보면 야간 경영대학원이 일반인들이 인식하듯이 반드시 '학위' 때문에만 입학하는 것은 아니다.

제2차 BK사업은 '국제수준에 맞는 고급전문서비스 인력양성분야'를 5개 분야 중 한 분야로 선정하였다. 전문고급서비스 인력의 양성이 교육을 받는

수혜자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의 인력공급 면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과 거의 동일 수준에서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에 경영전문대학원의 제도 및 구도와 관련된 논의는 경영전문대학원 관련자만이 고민할 부분을 넘어 국가적인 교육의 차원에서 심사숙고할 부분이다.

참고문헌

- 강호상 외. 경영대학원 교육에 대한 평가 및 기대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1997. 5
- 김진천. 대우-미시간 Global MBA 과정. 경영교육연구 1997. 5
- 손성규. 연세대학교 국제 연계 MBA 프로그램의 내용, 문제점 및 개선안. 경영교육연구 2003. 8
- 신동엽. 제도이론적 관점에서 본 경영학 전문대학원안의 문제점. 경영교육연구 1999. 5
- 안병훈 외. KAIST 테크노 경영대학원의 새로운 경영교육 프로그램. 경영교육연구 1997. 11
- 장영광 외. 성균관대학교의 경영전문대학원 MBA 프로그램 사례. 경영교육연구 1999. 5
- Alluto. 미국 경영대학원의 위기. 경영교육연구 1997. 5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Business System: As-Is and Issues

Tae-Young Paik* · Sungkyu Sohn**

Abstract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Business(PGBS) System was introdu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in 1988 to raise professional business leaders. This paper analyzes the operations of the initially approved PGBS of Sungkyunwan University and others. PGBS system tried unsuccessfully to provide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full-time MBA programs because of its stringent institutional requirement of abolishment of the Graduate Business School for Evening MBA at the same university. Problems of old PGBS systems and their potential solutions are discussed. It is also shown how New PGBS system since 2006 deals with the old problems.

Key Words: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Business, MBA, education of business professionals

*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 Yonsei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